



표지사진 : 카불 근교 톱다라마  
에서 여학생들에게  
지원한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2003. 4)

## JTS 통권 42호 2003년 7 · 8월

펴낸날 : 2003. 7.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최정연,  
이미경, 이순희, 윤미옥, 유미영,  
황미숙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 4     지금 인도에서는
- 7     동게스와리에서의 쉬람단

### 지금 북한에서는

- 9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 사업보고

### 아프가니스탄 소식

- 12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 이라크 소식

- 14    일랄리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 16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 따뜻한 이웃

- 18    북한어린이와 함께 하는 서라벌고등학교 1-3

### 후원의 소리

- 20    베품과 나눔의 행복
- 21    나는 이제 봉사의 기쁨을 안다

### 활동보고 및 안내

- 23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지원 사업  
아프가니스탄 소식  
이라크 소식  
국내사업
- 27    신규회원 명단 및 물품지원
- 29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32    라진 · 선봉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 34    마산고등학교 동문체육회 마당



## 지금 인도에서는

장영주 / 인도 JTS 실무자



### I 동게스와리 마을 주민 200여명에게 옷 분배

5월16일 수자타아카데미의 주변 마을 자그디스푸르, 두르가푸르 주민 200여명에게 지난 3월 한국에서 보낸 중고 의류를 골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번 배분은 그동안 착실히 구조사를 하여 가족식구수대로 의류를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차례로 하루에 한 마을씩 옷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산을 너머 와 한 보따리씩 옷을 받아 안고 함박웃음을 짓고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 저희들도 덩달아 기뻐집니다.

## II 동게스와리 마을의 1차 인구조사 마침

지난 5월 초순에 마을개발 파트의 김동하, 조영옥님의 수고로 1차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14개 마을에 1,343세대로 9,051명이 살고 있습니다.

## III 숙지타이카데미 여름 방학

학교는 5월 19일부터 4주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한국인 자원봉사자 18명이 파키스탄을 거쳐 아프가니스탄 카불 사업장을 방문하는 2주간의 휴가를 가졌습니다. 휴가에서 충전한 에너지로 혹심한 무더위를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 IV 결핵환자에게 쌀 지원

지바카 병원에서는 5월 17일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의 결핵환자 9명에게 형편에 따라 50키로, 30키로, 20키로 씩 총 300kg의 쌀을 지원하였습니다.





### V 노동자들도 자기 이름을 쓰다.

공사파트에서는 기술학교 학생들의 지도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12:30-2:30 두 시간씩 수준에 따라 힌디,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을 받을 때 손도장을 찍기 위한 스탬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을 하고 나서 모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2주 휴가 동안 공사파트도 2주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기간 동안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하여 1주간의 임금을 보너스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파트 인부들을 위하여 퇴직금 적립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약관이 준비되고 충분히 공지한 다음 시행할 예정입니다.

### VI 김동하, 정태경 봉사자가 아프가니스탄 사업장에서 활동

마을개발파트에서 인구조사를 마친 김동하씨와 병원 결핵파트에서 일해 온 정태경씨가 5월 19일 인도제이티에스에서 회향하고 아프가니스탄 제이티에스로 옮겨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찬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 등계스와리에서의 쉬람단

조영옥(스루비) / 인도 마을개발 자원봉사자



인도에서의 자원봉사를 마음먹고 이곳에 오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정토회관에서 21일간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있었다.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은 뭔가를 아껴 쓰고 절약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으로서, 절제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받아 들여졌는데 이곳에서 마을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이곳 주민들이 물을 얻는 방법은 공동 우물과 공동 핸드펌프를 통해서 이고 그 물은 그대로 식수에서 농업용수까지 널리 쓰인다. 그나마 가축들은 사람들이 쓴 후에 고인 웅덩이 물을 먹게 된다.

언제나 마을 우물가나 핸드펌프 주변에 몸을 씻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그리고 물 항아리에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거나 마실 물을 길어 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이렇듯 물이 이처럼 중요하고 긴급하게 생활에 없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에 비해 이곳의 물 사정은 아주 좋지 않다 못해 물로 인해 병을 얻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을공사의 대부분은 우물과 핸드펌프에 관련된 것이고, 4월말부터 시작한 쉬람단의 내용도 예외가 아니다.

쉬람단이란 한집의 일감을 돌아가며 함께 해내는 우리 나라의 두레와 비슷한 것으로서 마을에 필요한 공사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JTS India에서는 마을의 일감을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와 기술자 한 명을 제공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마을 리더가 있는 8개 마을 중 7개 마을이 쉬람단을 신청하여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동안 공사를 진행하는데 4개 마을이 끝났고 3개 마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쉬람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 스스로 개인의 이익보다 마을의 이익을 위한 일감을 찾아내고 함께 만들어 가는 데서 얻어지게 되는 만족감과 자신감 그리고 친밀감이다. 그 동안 쉬람단을 통해 마을 주민과도 친해지고 완성된 우물과 핸드펌프 플랫폼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웃음을 보며 함께 좋아도 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아쉬움도 있었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대부분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생긴 실수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람단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쉬람단을 강한 마인드로 추진할 수 있는 또렷또렷한 인도인이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믿는다.

시행착오를 겪다보니 보다 나은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경험으로 축척되며, 마을이 바뀔 때마다 어떤 문제가 또 숨어 있을까 두려워하던 마음은 이젠 그저 과정으로 받아들여져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요즘은 방학이라 아이들이 집에서 집안 일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한다. 주로 농사 일을 돕거나 가축 먹이를 주는 일, 빨감을 구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등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모습은 학교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지내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중간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아이들이 야무지게 해주니 앞으로의 시간에 어찌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도의 인사말인 '나마스떼!'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이다. 항상 '나마스떼! 나마스떼! 하며 밝은 모습으로 생글거리는 그들이 어른이 되면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만 같다.



#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사업 보고서

제공 : 정토회 국제연대부

· OCHA(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북한 주재 유엔 인도주의 사업 조정 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보고서가 나온다. 아래의 내용은 2003년 4월 보고서로서 북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도지원사업을 하는 국제기구들의 활동 보고이다. 북한식량사정이 기전 보고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주로 국제 기구들의 지원 현황이 실렸는데 그 내용을 번역하였다.

· 지난 4월 17일 박지나이사님이 라선을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 연길에 도착하였는데 중국에서 만연된 사스(SARS) 문제로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라선을 방문하지 못하였다. 6월 하순부터 국경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OCHA(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주 북한 유엔 인도주의 사업 조정 사무소 2003년 4월 보고서*

## ■ WHO : SARS의 예방과 준비가 북한에겐 큰 위험

WHO는 SARS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평양의 국제기구와 대사관에 제공해왔다. 중국과 가깝고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탓에 SARS는 북한에 아주 위험한 요소이다. 4월초에 WHO는 보건부와 다른 건강기관의 실무자와 공무원을 위한 SARS예방 워크숍을 주도했으며, 후에 병원 근무자를 위한 두개의 훈련프로그램도 진행했다.

## ■ AmeriCares 가 영양비스킷을 보낸다

AmeriCares는 3월에 US\$238,734 상당의 19톤의 영양비스킷을 보냈다. 4월에 도착할 이 물품은 평안남도과 황해북도의 리 단위의 임신부와 수유부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AmeriCares는 1997년 이후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 ■ 국제 적십자 연합 (IFR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보건소 지원: 6,720개의 기본용품 세트가 2003년 2분기 분배를 위해 3월 25일에 도착하여 그 중 6,252개는 4월 10-28일에 시와 군의 보건소에 보내졌고 나머지는 보관되었다. 배분의 모니터링은 5월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건강증진: 응급처치자들을 위한 수련을 자강도의 희천시에서 4월 22-24일에 실시하였고, 총 17명이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참석하였다. 응급조치를 위한 물품들도 배부함. 또한 말라리아에 대한 5번의 워크샵이 100명의 간호원과 산파들에게 실시됨. IFRC는 WHO와 함께 SARS환자 격리수용에 근무할 직원들을 위한 2개의 워크샵도 실시하였다.

## ■ UNICEF - 건강과 영양

· **면역프로그램(EPI) 확대** : 면역 프로그램 확대 수련이 전국의 70명의 실무자를 위해 실시되었다. 첫 수련은 B형 간염 백신을 소개하기로 예정된 4개의 도에서 도/군 단위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실시되었다. 두 번째 수련은 모든 도에서 냉장체인 기술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백신의 냉장체인과 백신처리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필수 약품** : 4월분 약품이 2003년 공급계획대로 황해남도에 개성, 남포, 평양에 배급되었다. 하지만, 지원금의 부족으로 UNICEF는 5가지 아주 중요한 약품만을 공급하고 있다. 현지시찰은 의약품들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의 모든 보건소는 설사와 호흡기 염증을 치료할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

## ■ 식수/위생

### - 국제 적십자 연대 (IFR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활동

4월 현재 평안남북도 10개의 마을에 하수시스템이 건설 중에 있고, 4월초에 중국에서 식수/위생을 위한 시찰조사가 있었다. 네델란드 적십자의 대표가 방문해서, 몇 개의 시설을 돌아보았다. 현재 ECHO와 계약관계를 맺고, 적십자 사업 중 식수/위생 프로젝트의 자금 75%를 지원하였다.

## ■ 식량원조 - WFP

약속된 지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WFP는 4분기까지의 취약층을 위한 곡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월 동안 WFP는 ECHO가 보낸 46,000톤의 선적이 도



착함으로써 타아소, 유치원의 어린아이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큰차질 없이 곡류를 배급했다. 그러나 식품생산업체들은 콩의 부족으로 인해 어린아이들과 임산부/수유부를 위한 영양식을 생산하는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취약층을 돕기 위해서 동/서해안의 다른 노인, 간호인, 몇 어린이 시설에 대한 배급이 5월에는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6월에는 남한에서 보낸 옥수수가 도착함으로써 모든 그룹에 대한 배급이 재개될 것이다. 추가지원이 없는 한 4분기에는 또 다른 배급중단이 예상된다.

5,500톤의 콩 구입을 위한 250만 달러의 캐나다 원조와 20만 달러의 현금의 핀란드 원조는 확보되었다. 연말까지 식량지급부족은 120,000톤 (곡류 95,000톤, 옥수수 9,500톤, 옥수수/두유 9,000톤, 설탕 3,500톤과 기름 3,000톤)이다.

## ■ 모니터링과 접근

4월 후반부에는 국제응급실무자들의 모니터링 활동이 SARS 관련 검역과 여행규제로 인해 25% 감소하였다. 정부는 신의주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문을 규제했다.

### WFP 북한 보고서 / 2003년 24호

북한에는 밀, 보리, 감자 수확은 그 주간 동안 몇몇 추적된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한편 으른 모내기가 진행 중이었다. 소위 '물코끼리'라 불리는 접근제한 지역에 해충 출몰에 대한 보고가 황해 남부지역에서 있었다. 3월 ~5월 기간 동안의 강수량은 실질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0년간의 평균치보다 더 많았다. 서부 강원 지역과 황해 북부의 동쪽 지역은 예외였다.

곡물분배는 6월에는 어린이 기관들과 초등학교에서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으나 어린 아이들, 임산부와 수유부 등 핵심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모든 수혜대상자들에게 다시 분배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확정된 지원물품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대로 3/4분기 동안은 계속 분배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 하반기에 사용될 8만 2천 톤의 공급 부족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10만톤의 옥수수, 만 천 톤의 쌀, 4만 5백 톤의 밀이 도착하기로 되어있다. 6만 1천 톤의 곡물, 7천톤의 콩, 7천 톤의 두유, 3천 5백 톤의 설탕, 3천 톤의 기름 등의 식량 지원에 있어서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활 필수품들 또한 제공되었다. 최근의 현금 기부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들을 위한 혼합 강화 식품의 지역 생산을 위한 설탕 구입에 사용 될 것이다.



##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덕아 / 아프칸 JTS 실무자



### 앗살람 알레이쿰

아프칸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곳 아프칸 카불도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도 쌀쌀하지만 한낮의 태양은 모든 땅을 사막으로 만들 것처럼 강렬하게 뜨겁습니다.

마을마다 뿔나무 열매인 오디도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 수박도 아주 맛있 습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모래 바람이 앞이 안보일 정도로 심하게 불곤 합니다.

아프칸 식구가 늘었습니다.

저와 법운법사님, 재령간사님, 지역 이, 인도에서 각각 5개월씩 자원봉사를 마치고 온 태경이와 동하, 그리고 케나다에서 온 한석, 지금 총 7명입니다.

재령 법우, 태경, 동하는 최근에 도착한 컨테이너 물품들 분류하고 정리 작업하느라 새벽부터 바쁩니다. 치안 문제로 컨테이너의 물건을 내리거나 넣는 작업을 사람들 없는 새벽에 하느라 요즘 매일 새벽 3시경에 일어나서 전 식구가 짐을 내리고 넣는 작업을 합니다.

피곤하기는 하지만 함께 하는 재미가 있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역이는 1차 여학생 교복, 운동화 배분을 마치고 요즘은 남학생 운동화와 문구, 도서지원을 위해 시내 서점과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마쳤 습니다. 1차로 10학교에 200권의 도서를 지원하기로 하고 캐비닛과 도서를 구입하러 혼자서 카불 시내를 다닐 때가 많은데 매일 한 번 이상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신나 하면서...

법운법사님은 요즘 사카르다라 도로 보수 중 다리건설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작업을 한참 진행중입니다.

여학생 교복과  
운동화를 지원  
한 사카르다  
라 학교와  
안쪽 유목  
마을과 정  
글라 마을  
(몽골리안)  
을 지난 5월  
에 법륜스님  
과 함께 방문했  
을 때 두 마을 다 자  
발적으로 마을 도로를 보수  
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의 길을 돌이 많아서  
다이나마이트를 사서 돌을 깨면서 차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물 내려가는 작은 계곡 때문에  
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  
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재만 지원을 해  
주면 다리 공사를 마을 사람들이끼리 하겠  
다고 해서 다리를 설치 할 수 있는 자재  
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쟁 후 모두가 식량이 부족해서 어려  
운 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  
로를 보수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  
니다.

지난 5월 칸다하르를 방문하여 판즈  
웨이의 IDP 난민 약 만 가구에 밀가루  
50kg와 학교용 텐트와 문구류, 여성들을  
위한 재봉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난민들은 자신들은 배  
우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

라도 자신들 자식  
들은 꼭 글을  
가르치고 싶  
다는 말에  
법륜스님  
께서는 눈  
물을 흘리  
시며 그 동  
안 이라크  
전쟁 후 외국  
인 테러로 인해  
이들을 외면하고 지  
내온 것을 참회하시며 조금

어렵더라도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  
다. 그래서 저는 요즘 칸다하르의 사업  
준비를 해서 늦어도 1주일 후엔 칸다하  
르로 내려 갈 예정입니다. 최소 한 두 달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이 후 배분을 마  
치고 한국에서 보내온 겨울옷을 바미얀  
지역에 제일 어려운 지역인 waras지역  
에 배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칸다  
하르도 어려운 지역이지만 아프간의 몽  
골리안 들의 집단 거주인 바미얀도 칸다  
하르 못지 않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텔  
레반 집권 당시 세계 최대의 석불 상을  
파괴 시켜 세계인을 안타깝게 했던 바미  
얀 지역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라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학교나 의료시  
설이 전혀 없어서 아이들의 교육이 심각  
한 지역입니다.

제이티에스는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라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랄리까! -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이상환 / JTS 이라크 긴급구호 담당



바그다드 쓰레기집하장 건설현장을 보러 가는 길.

뉴바그다드 동네인 알까마리아의 길이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짙은 녹색물 보라를 튀기며 길 가장자리로 쓰레기가 쌓인 거리를 차는 내달립니다. 사각형 쓰레기장 안의 쓰레기보다는 그 밖의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의 이라크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 지역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전평화팀과 같이 두 달이 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이티에스에서 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바그다드의 빈민지역 중의 하나인 뉴바그다드에 15개의 쓰레기 집하장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빈민마을을 조사하다 썩어

녹색으로 변한 물이 고인 길에서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것을 말리는 어른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업이지만 이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는 아마르의 말처럼 서서히 사람들이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 뉴바그다드 전체로 이런 쓰레기 집하장을 늘려가겠다는 말속에서 작은 희망을 봅니다.

내일 아침에 알타쉬캠프로 떠납니다. 오늘 방역기를 점검했습니다. 알타쉬캠프는 이란계 쿠르드족이라 이라크 전후에 가장 소외당한 사람들 중의 한 부류입니다. 바그다드에서 고속도로 140킬로미터 정도 달려 다시 안으로 15킬로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흙빛 집들을 마주하면서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쳐내면 사람들이 달려나와 저를 맞이합니다. 21일에 한 번 물이 나오고 그것도 1시간에서 30분 정도에 그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쓰레기가 아무 곳에 버려지고 있어서 콜레라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아침저녁으로 마을 청년들과 방역을 할 생각합니다. 저녁에 해가 사막너머로 기울면 사람들과 흙먼지를 날리면서 배구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을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저와 태경이가 이 마을에서 이들을 잔 적이 있는데 이 마을이 생긴지 23년만에 처음으로 묶고 간 외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날 떠나올 때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일랄리까!(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내일 그곳으로 갑니다. 함자와 카카부라와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오늘도 보석처럼 박힌 사막의 별들을 보면서 잠이 들겠죠.

제가 이곳에서 깊이 확인하는 것 중의 하나는 평화의 핵심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아침을 정갈하게 열고 대문을 나서 이웃들에게 "살람 알라이꿈(당신에게 평화를!)"하며 인사를 할 때 그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알라이꿈 살람"

거리에는 '창신 교회'도 있고 '꿈나무 유치원'도 달립니다. 이라크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입니다. 우리가 쓰다 내동댕이친 수많은 차들이 이곳을 달리듯 한국과 이라크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내 눈앞을 스치는 창신 교회와 꿈나무 유치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중고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을 닦히는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무관심과 무지가 이라크 전쟁을 빚어냈다는 사실 앞에서 참회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발원합니다. 고난과 혼돈 속에 있는 지금이 평화를 만들 때라고!



##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조태경 / 이라크 자원봉사자

가이드와 함께 빈민가가 있는 시장에 갔다.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이방인의 출입에 신이 났다. 사진을 찍어달라며 단체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으며, 장난기가 심한 어린이들은 가까이 붙어서 바지자랑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장난감 총으로 자기 머리에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는 시늉을 하던 한 아이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고향을 질러댄다. 다른 친구들도 장난감 총으로 서로에게 쏘아가며 죽고 죽이는 흉내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라크인 가슴에 흐르고 있는 싸움의 피를 느꼈다. 또한 어느 20대 가량 청년들은 진짜 장총을 꺼내어 탄알 없이 하늘을 향해 쏘아대는 모습을 연출하며 사진 찍어 달라 하였다. 서로에게 장총을 넘겨가며 승리했다는 듯이 손을 들어 흔들며 대었다. 80년대 이란과의 기나긴 8년 전쟁을 거치고, 1990년에는 쿠웨이트를 일방적으로 침략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에 의하여 참패를 당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총성 없는 잔혹한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서도 2000년 걸프전이 발발한 이후, 최근에 다시 미국과 영국 등에 의한 일방적인 전쟁에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민족 정서를 감안해 보면 이라크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장난기 섞인 낯선 제스처 속에 살아있는 싸움의 피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이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삶의 한 과정으로써 그 문화가 생활양식 속에 그대로 녹아나 있는 것이었다. 곁에서 계속하여 죽어 가는 가족과 친척들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삶이었다. 살아야 했기에, 살아남아야 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은 마음이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 '구걸'이란 말은 '용서할 수 없는 수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굶주려도 당당한 품이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굶히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었으며, 보이고 싶지 않은 역사적인 상처가 있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에게 구걸하는 것은 구걸이 아닌 당당한 요구였으나, 낯선 외지인에게 무조건 받는 것은 수치였다.



수 있는 친구에게 구걸하는 것은 구걸이 아닌 당당한 요구였으나, 낯선 외지인에게 무조건 받는 것은 수치였다.

상처 받은 영혼의 치유와, 우리는 결국 한 몸 한가

족이라는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울고 함께 헤쳐 나가려는 진정한 이방인 친구가 더욱 그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 북한어린이와 함께 하는 서라벌 고등학교 1학년 3반

성큼 다가온 더위 탓으로 땀방울이 송송 맺히는 여름날이 즐거운 것은 어디선가 은은하게 피지는 장미 향내가 있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북한 어린이를 돕고 있는 서라벌 고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진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 함께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였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호응을 보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같은 민족인데 불쌍하다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 ■ 학생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성금을 마련하시나요.

학생들은 매일 백 원씩, 저는 매일 천 원씩 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성금을 내기도 합니다.

### ■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일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북한 어린이 돕기를 계기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을 내게 되는 것과 통일과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단순히 성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도나 북한 어린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 저희 단체를 알게 된 동기와 마음을 내시게 된 동기는.

1998년 대한불교청년회 부설 만해대학에 다닐 때 범문 하러 오신 법륜스님을 처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JTS에서 북한동포돕기와 인도지원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반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그 해 태어난 아들과 아내와 함께 비록 직접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 저희 단체에 바라고 싶은 점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JTS활동을 보다 잘 알 수 있고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 앞으로의 희망은 무엇인지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였으면 좋겠고,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가족과 사회와 인류와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JTS의 이념대로 이 지구상에서 기아, 질병, 문맹이 퇴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베픔과 나눔의 행복

정성태 / 회원, 유한킴벌리(주)담양물류센터

한·일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던 2002년 6월 평소 독실한 불교신자인 나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찰들의 소개와 인터넷법문을 접하던 중 눈이 번쩍 뜨이는 법문을 만나게 되었다.



기 운동에 참여하였고, 그중 북한 어린이 돕기는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인 선과의 원리를 믿어 자신의 공덕 쌓기를 쉬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이후 베픔과 나눔의 행복이 어떠한가를

해남 대흥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법문 중 한복스님께서 올려주신 부자 되는 법이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TV광고를 화두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복을 짓는 방법, 고통 속의 중생, 보시의 방법, 돼지 저금통과 함께 크는 공덕 등으로 이어지는 법문이었는데 그때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한국 JTS(Join Together Society, 국제 기아·질병·문맹 퇴치 민간기구)의 통일 돼지 저금통 키우기 운동이 소개되었으며, 적극 참여하여 자비를 실천하리라는 결심을 하였고, 한복스님께도 복전으로 인도해 주십에 감사드린다는 코멘트를 하였다.

그후 JTS에 노크하여 통일돼지 저금통, 인도 결핵 환자 돕기, 북한어린이 돕

JTS외에 다른 곳에서의 실천을 통해서도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진 요즘 부인과 자식들 앞에서 좋은 아빠로서 자랑스럽게 비취지고 있어 감사드릴 뿐이다.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나주 계산원(지체장애아 보호소)에 20kg 쌀이나 과자 또는 생활용품 등을 가끔씩 가져가는데 그때는 꼭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빠의 봉사활동을 보여주며 손을 맞잡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며 살자고 맹세하며 귀가하는데, 그럴 때마다 두 아들이 써놓은 일기장을 보면 인생의 보람과 살맛을 느끼게 한다. 바로 이것이다. 자식교육이 따로 있겠는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TV광고가 성행한 그때 구체적인 보시의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며 인터넷법문을 해 주셨던 대홍사의 한복스님께 감사드리며, 이후 JTS를 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훌륭한 민간 단체임을 알았고, 저희들에게도 작은 실천의 터전이 마련되어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한국JTS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아 이사장이신 범륜스님께서 2002년 레이몬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셨다. 앞으로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한국JTS에게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꼭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개인이나 집단, 종교 등으로 인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JTS의 노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훌륭한 위업이 모든 이의 심금을 울려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지길 기원 드린다.

## 나는 이제 봉사의 기쁨을 안다

김화식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

현대 사회는 워낙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그 단체들 속에 파묻혀 자기가 무엇을 하며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구와 같이 봉사활동을 신청한 단체는 J. T. S라는 곳이었다.

이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은 우리의 동포인 북한 어린이들의 기아 문제와 세계화로 인한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의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을 동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다. 하지만 발 벗고 아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천적 행동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의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어린이들을



위해 해외에 나가 직접 발로 뛰며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각종 홍보기사를 통해 보았을 때 그 분들에게 경외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젊은 친구들이 여름 동안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그 동안 짬을 내어 날마다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감동을 받음과 동시에 나 자신의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편 발송 업무와 워드 작업 등을 주로 했는데, 단순 노동인지라 허리가 아플 때 마음속으로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려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후원금을 입력하는 워드 작업을 하면서 전국 곳곳 사람들이 적지만 다달이 후원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거리의 모금함과 통일패지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다.

개개인들이 하는 조그마한 봉사들이 모여 커다란 봉사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깨달은 것이다. 봉사는 크고 작음을 떠나 자기만족을 통한 봉사자의 행복이고 도움을 받는 이들은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것이다.



내가 그 빛을 알기 전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을 지각하지 못한 채 동굴 안에 갇혀 살았다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그 어둠을 깨닫고 세상의 다른 어둠을 걷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의 자기만족을 넘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봉사,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참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누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세상이 하루 빨리 우리들에게 오기를 바란다. 그런 세상을 위해 남보다 내가 먼저 그런 일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봉사의 기쁨을 안다. 그래서 그 봉사의 기쁨을 다른 곳에서도 함께 하고 싶다. 많은 봉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함께 하며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인도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거행된 봉축 법회와 제등행렬



지난 5월16일(음 4월15일)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1,100여 명의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륜스님을 모시고 육불의식과 범륜스님의 범문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오후에는 보드가야에서 400여명의 학생과 마을주민들이 행사 모형을 성대히 만들고 각자의 손에 만장, 등게스와리 각 마을 이름을 쓴 피켓을 들고 2시간 동안 제등행렬을 하였다. 제등행렬을 마치고 학생들이 갈고 닭은 실력으로 춤, 노래, 태권도 등의 장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면서 수자타아카데미와 마을 사람들은 보드가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게스와리를 빛내고 자긍심을 키우게 되었다.

- 등게스와리 마을 주민 200여명에게 옷 분배

지난 5월16일 수자타아카데미의 주변 마을 자그디스푸르, 두르가푸르 주민 200여명에게 지난 3월 한국에서 보낸 중고 의류를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이번 배분은 그 동안 착실히

가구조사를 하여 가족식구수대로 의류를 분배하였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 차레로 하루에 한 마을씩 옷을 나누어주고 있다. 산을 넘어와 한 보따리씩 옷을 받아 안고 함박웃음을 짓고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덩달아 기뻐진다.

## 북한 지원 사업

- 북한 라선지역 유치원에 영양식 재료지원  
한국제이티에스에서는 7월 2일에 어린이 영양식 재료인 분유 14톤, 설탕 14톤과 영양식 가루를 담은 비닐봉투 5만장을 부산항에서 라선항으로 보냈으며, 중국에서 입쌀 38톤을 라선으로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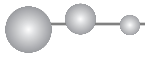
## 아프가니스탄 소식

-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 2차 보조금 받음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지원사업 단체인 한국제이티에스에 전체 지원 약정액 1억 2천 5백만원중 2차 보조금 6천 2백 5십만원을 지난 5월 29일 지급 받았으며, 한국제이티에스에서는 그 동안 이라크전 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지연되었던 칸다하르 IDP 캠프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칸다하르 IDP캠프 긴급식량, 재봉틀, 교육용 텐트 지원

한국제이티에스에서는 칸다하르 뺨즈웨이 지역의 IDP캠프 1만여 가구에 밀가루 50kg 지원과 재봉틀 80여대 지원, 어린이 교육용 텐트



80여개와 문구류, 의류 등의 지원을 6, 7월에 진행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선주법사(이덕아)와 박지나혜의사업본부장, 자원봉사자 4명이 칸다하르에 내려가서 구호 활동을 펼칠 것이다.



### 이라크 소식

● 이라크에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긴급파견  
지난 5월3일 박지나혜(한국JTS 해외사업본부장), 이상환님 (정도희 대학생부 간사), 최현주님(자원활동가), 조태경님(자원활동자) 4명이 현지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라크로 파견되어 1차로 6월말까지 알타쉬 난민 캠프에 이라크 청년들과 함께 방역사업을 하였고 7월 말부터 식량구호와 문구 등의 지원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이라크 지원사업 약정 받음  
식량구호와 방역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된 이라크 긴급구호사업 총사업비 약 2억 2천만 원 중에서 국제협력단에서 1억8백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정되었다. 이번 이라크 지원은 바그다드 빈민지역 3개 마을 3,500가구에 긴급식

량지원, 3개 초등학교 6천여 학생에게 문구류 지원, 방역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6월 16일 전체 약정액 1억 8백만원중 1차 보조금 5천4백만원을 협력단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 국내 사업

#### ● 조계사 앞에서 JTS 홍보



지난 5월 4일(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후 12시-오후5시까지 조계사 앞에서 거행한 불교문화마당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북한, 인도, 아프리카 사업을 담은 거리 사진전과 인도 물품판매, 인도 문화체험인 인도 음식 만들기, 부수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행운의 보리수인 나누어주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호응 속에 축제의 분위기였다. 정도법당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다른 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 김정환님이 외국인을 상대로 통역을 해주었다.

● 5월 5일 전국 어린이날 캠페인 및 거리 모금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계어린이들을 위하여



캠페인 및 모금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행사장에는 제이티에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 북한, 아프간 어린이들이 나온 현장사진을 전시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분수대에서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촛불을 밝히고, 통일깃발을 세웠다. 부산은 부산연과 을숙도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도 23명이 주체가 되어 하트모양을 골판지 종이로 완성하며 재미나게 진행을 했다. 대구에서는 21명이 두류공원분수대, 우방랜드, 달성공원, 교대국채보상공원, 월드컵경기장, 어린이회관 등에서 여러 조로 나누어 활발하게 모금활동을 했다. 대전은 충대 앞에서 5명이, 광주선암공원과 체육공원에서 7명이, 청주는 청주어린이회관 앞에서 8명이 참가해 진행되었다. 울산은 울산대공원에서 마산은 돛섬여객선터미널, 창원올림픽공원, 마산두산중공업에서 각각 활동을 했다. 제천은 제천솔밭공원에서 중학생 4명을 포함해서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미있게 진행했다.

어린이날을 단순히 노는 날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에 동참하게 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른과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161명이 참여했고, 이번 행사에서 모금된 금액은 6,189,120원이다. 진행해 주신 분들과 참여해 주신 지역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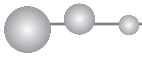
## ●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남북한 어린이

5월 29일 남양주시에 있는 도곡초등학교 6학년 3반 어린이 45명과 함께 통일과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돼지저금통을 모아왔던 친구.", "저요! 저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담임이신 정홍식선생님은 아이들이 예전부터 후원해 왔음을 알렸다. 북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전시하면서 즐겁게 동참한 이날 수업은 8명씩 6모둠으로 나뉘어 2시간 동안 북한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알아보고, 제이티에스 활동을 비디오로 시청했다. 인도, 북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지원하고 싶은 곳에 후원을 하겠다고 모금을 해 주었고, 이날 모인 금액은 6학년 3반에서 26명이 108,300원을 6학년 1반에서 10명이 6반에서 2명이 함께 참여해서 전체 금액이 144,300원이다. 어려울 때 후원도 하고 남북이 서로 다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다가가는 어린이들이 대견스럽다.

## ● 법륜스님, 박지나본부장, 이지현 국장 인도JTS 및 아프가니스탄 현장 방문



5월13일부터 6월 1일까지 법륜이사장님과 실무진, 법보신문의 김민경기자가 인도JTS 및



아프가니스탄 JTS 지원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인도의 부처님오신날 행사 참여와 아프가니스탄 카블 근교 사업장 방문, 칸다하르 IDP캠프촌 방문이 있었고, 특히 하반기 이후의 사업을 위한 바미안 지역의 답사가 있었다. 이번 방문으로 칸다하르 IDP의 지원사업 내용과 향후 지원지로 바미안지역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돌아왔다.

- 아프카니스탄 학교 건축비로 대덕한의원(원장 염용하) 외 2명 3,000만원 기증  
아프칸 카블 근교 툴다라 지역 학교 건축비로 대덕한의원 원장 염용하님과 최병진, 한상태님이 학교 공사 완공을 위해서 3천만원을 기증하였다. 교실이 없어서 모스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300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될 학교이다.

- 일본 피스보트팀 동경에서 매주 토요일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캠페인 실시



지난 4월 25일 일본 피스보트의 금령하님과 손명수님(한일시민 스케어 대표) 북한어린이 돕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JTS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용인에 있는 JTS 창고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일본에 돌아가서 피스

보트에서 북한어린이 돕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모금을 하고 있다. "피스나우 코리아 재팬"이라는 캠페인으로 5월 31일 한일전 축구경기장 앞에서 처음 2시간 모금을 시작하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3만엔을 모을 수 있었다. 8월말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캠페인을 해 나가겠다는 이들은 6월 18일 현재까지 5만 6천엔 정도를 모았으며 100만엔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 배지와 티도 제작할 계획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북한돕기 캠페인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하루빨리 앞당겨 지기를 바래본다.

-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자원봉사자 3명 파견



지난 6월10일(화) 오전 10시 20분 T.G 항공으로 자원봉사자 3명이 인도로 떠났다. 신입 실무자로서 대단한 포부를 갖고 떠나는 김혜원님(여, 27세), 기도대중으로 있다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인도를 건강상 미루어 왔던 정재원님(여, 28세), 인도를 가기 위해 정토회관에서 21일 교육을 마친 정영자님(여, 27세)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인도로 떠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신규 회원 (개인, 단체) 명단

2003.04.01-2003.05.31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 북한 어린이 결연

박영수211-11715-11  
 황준호211-11716-11  
 이주현211-11717-11  
 양승엽211-11718-11  
 변지현211-11719-11  
 하지영211-11720-11  
 서동민211-11724-11  
 차은경211-11723-11  
 박상희211-11725-11  
 이해정211-11726-11  
 이영옥211-11707-11  
 이수범211-11728-11  
 이광열211-11729-11  
 윤정이211-11730-11  
 전성지211-11731-11  
 박연욱211-11732-11  
 안병련211-11733-11  
 이택근211-11734-11  
 최승환211-11735-11  
 이병규211-11736-11  
 가정법회211-11739-11  
 임영린211-11740-11  
 최정숙211-11741-11  
 강리복211-11744-11  
 대동회211-11745-11  
 박동주211-11748-11

구상순211-11749-11  
 김용겸211-11750-11  
 김귀동211-11751-11  
 김덕영211-11752-11  
 이성미211-11753-11  
 문선경211-11754-11  
 서춘향211-11755-11  
 김지은211-11756-11  
 노경희211-11757-11

## 인도 어린이 결연

박기선111-03049-14  
 최명희111-03050-14  
 윤원상111-03051-14  
 윤순희111-03052-14  
 노은숙111-03053-14  
 정연경111-03054-14  
 김명순 방기호111-03055-14  
 강태훈111-03056-14  
 김기웅111-03057-14  
 김미좌111-03058-14  
 김영민111-03059-14  
 김응수111-03060-14  
 나외우리111-03061-14  
 나은영111-03062-14  
 박채옥111-03063-14  
 백을순111-03064-14

변동해111-03065-14  
 심미경111-03066-14  
 윤근하111-03067-14  
 윤길순111-03068-14  
 김낙균111-03069-14  
 조창희111-03070-14  
 이원영111-03071-14  
 박정일111-03072-14  
 최순이111-03073-14  
 이경선111-03074-14  
 경혜영111-03075-14  
 박만수111-03076-14  
 김우기111-03077-14  
 한세희111-03078-14  
 박숙영111-03079-14  
 김애자111-03080-14  
 전경자111-03081-14  
 서재승111-03082-14  
 김소정111-03085-14  
 전미영111-03086-14  
 서경예111-03087-14  
 최점석111-03088-14  
 최재진111-03089-14  
 원각스님111-03093-14  
 허춘희111-03095-14  
 정구연111-03096-14  
 이세은111-03097-14  
 엄옥례111-03098-14

최정숙111-03099-14  
 박영자111-03100-14  
 조병구111-03101-14  
 김정자111-03102-14  
 권방일111-03103-14

## 아프가니스탄회원

조혜정311-00278-13  
 조혜선311-00279-13  
 서지현311-00280-13  
 김순풍311-00281-14  
 박진현311-00139-13

## 단체결연

류영춘511-00115-15  
 손광호511-00156-15  
 최정애511-00014-15  
 정혜진511-00118-15  
 이상윤511-00122-15  
 정인권511-00123-15  
 옥순옥511-00125-15

## 결핵퇴치회원

신진현212-11737-11  
 적지농장유치원 4명 결연

## 특별후원금

선현스님100,000 김태순200,000 박은주120,000 최민석150,000 박동주500,000 박임영  
 30,000 임미진60,000 허성주1,000,000 이인표30,000 부산정일사980,000 문금숙20,000  
 권혁준30,000 김재원150,000 최기철150,000 서영호150,000 김민경100,000 번기환1,000,000 허성희1,000,000 김귀용  
 1,000,000 박현희150,000 심지희700,000 서지현200,000 김민정500,000 박명자,정재남,강경희200,000 도곡초교(남양  
 주)191,800 엄재용300,000 한세희1,500,000 정광훈200,000 정은성236,000 임세미300,000 인성호2,000,000 이근혁  
 300,000 최병연100,000 신정희영기50,000 남윤성100,000 곡문용200,000 서용표150,000 부산아간불교대205,000 조남  
 희100,000 지보사100,000 최태련100,000 홍인아씨엠300,000 임영희50,000 이석정100,000 한윤경5,000 김기진  
 1,200,000 강대진100,000 박수형215,000 사회복지공동모금5,000,000장부영300,000 정장영100,000 강효50,000 정상  
 만100,000 이명선100,000 광동중불교회421,400 이인옥150,000 최성희100,000 김순자외100,000 조정주500,000 이용  
 옥10,000 희봉스님100,000 이상두50,000 김승수100,000 배정희,진성,근영20,000 안병걸1,400,000 안정환1,500,000 안

지혜3,000,000 권상례300,000 황미숙200,000 이영진50,000 박정민30,000 김영숙50,000 최청운10,000,000 청담중  
 174,310 김태균100,000 김석웅300,000 박선화20,000 이영조20,000 김환기30,000 권정구40,000 김현미80,000 박순  
 천40,000 김인필40,000 고정희200,000 박인자20,000 한지영200,000 김숙자100,000 동학사주지스님1,000,000 LA정  
 토희7,626,000 김민욱240,000 이성재,이재은50,000 박영숙,박재성,박재정30,000 임정희-양군철영가102,100 마경숙  
 100,000 김정숙(안성)700,000 최원종100,000 귀산스님2,500,000 김대중,김선희,김우중120,000 익명150,000 최윤석  
 100,000 최우진10,000,000 한창련1,114,580 조금란364,000 최정임643,405 박수선5,000 임정섭5,000 황신경, 황휘  
 남, 황오환, 진지와 301,890

## 이하는 LA 정토회특별후원금

단위는 \$입니다

- 인도성금 서지혜 120,00 하인경 40,00
- 북한성금 김인숙 50,00 윤성운 10,00 표영수 20,00 김경청 20,00 이경택 100,00 신지숙 10,00 박은  
 숙20,00 강태호 30,00 김성태10,00 김진기 40,00 이형환 30,00 최희섭 20,00 손미영10,00  
 이도인 20,00 오인석 20,00 김혜련 20,00 김진기 20,00 이경택 100,00 하인경60,00 박영숙 100,00 김경청 20,00 최희  
 섭 20,00 신지숙 10,00 김지연 50,00 박은숙 20,00 강막동 10,00 양옥분 10,00 방영자 80,00 김인순 10,00 이도인 20,00  
 우영희 100,00 김진기 20,00 표영수 20,00 김성태 10,00 오인석 20,00 윤성운 10,00 최희섭 20,00 임병호 20,00 박영숙  
 100,00 김경청 20,00 이경택100,00 신지숙 10,00 손미영 10,00 윤혜미 40,00 한국건재 20,00 이지현 60,00 하인경  
 50,00 하인경 30,00 박영숙 100,00 이경택 100,00 박은희 20,00 표영수 20,00 최희섭 10,00 김경청 20,00 윤성운  
 10,00 신지숙 10,00 이도인 20,00 김성태 10,00 임병호 20,00 하인경 50,00 박은숙 20,00 이경택 100,00 박영숙 100,00  
 윤성운 10,00 최희섭 10,00 김경청 20,00 윤혜미 100,00 신지숙 10,00 손미영 15,00 진선이 20,00 전신전 120,00 현병  
 숙 400,00 한지희1,000,00 구영수 130,00 이형환 20,00 박은숙 20,00 김경청 20,00 윤성운 10,00 이도인 20,00 최희섭  
 10,00 이경택 100,00 김정은 60,00 박영숙 100,00 김진기 20,00 표영수 20,00 신지숙 10,00 한국건재 20,00 임병호  
 20,00 윤성운 10,00 김경청 20,00 손미영 10,00 박영숙 100,00 박은숙 20,00 이경택 200,00 최경숙 100,00 이도인  
 20,00 정인환 120,00 표영수 20,00 한지희 1,000,00 최희섭10,00 신지숙10,00 하인경 40,00

## 물 품 후 일

2003년 4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JTS로 들어온 물품내역입니다.

- |  |   |
|--|---|
| 1. 씨앤아이 세계절 5-13세 의류 11박스                            | 11. 월드컴마산대리점 아동,성인화 2,000컬레                   |
| 2. 불법사 담교스님 면티 138장                                  | 12. 마산 화이트앤블랙 아동,성인화 2,000컬레                  |
| 3. 부산정토법당 비누 400개, 치약 36개,<br>담요 6장 등 생활필수품과 문구류 6박스 | 13. 김중수 타올, 비누, 칫솔, 치약 30세트                   |
| 4. 대전정토법당 수건 32장, 비누 38장 등 생활필수품 1박스                 | 14. 독일정토법당 수술용 모자, 장갑, 기운 등 의료용품 11박스         |
| 5. 울산정토법당 티셔츠 218장                                   | 15. 김민경 유아비지 10장                              |
| 6. 대전동학사 남양말 62, 여러닝 26, 여팬티 12, 남러닝 2               | 16. 김혜경 수건 12장                                |
| 7. 김옥희 도교약 68, 거즈 75, 바세린거즈 8                        | 17. 성남타올 양말 209장                              |
| 8. 서울정토법당 수건 20장, 비누 27장 등 생활필수품 2박스                 | 18. 신방학중 재활용크레피스 1박스                          |
| 9. 자은정사 묘연스님 양말 72장                                  | 19. 청주정토법당 수건 24장, 비누 24장 등<br>생활필수품과 문구류 1박스 |
| 10. 마산 신발나라 아동,성인화 500컬레                             |   |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 광주

모금(4/14) 44,070 모금(4/26) 197,060 모금(5/10) 225,990 모금(5/17) 408,100 모금(5/5) 401,570 박정우 18,890 유영심47개 169,090 이나래 29,930 최현승 4,150

## ■ 대구

김등미강 10,000 김보미 16,240 김성우 14,050 김성일 22,930 김순녀 21,550 김양모 27,380 김정식 18,270 김정원심 7,520 김정현 27,590 김정혜 30,170 김철환 14,260 남외선 17,310 노영숙 29,860 덕신여관 26,500 덕정화 37,130 덕정화 30,110 류경희 33,150 류승훈 205,880 명심각 8,870 모금(어린이날) 963,380 모금(임은숙) 145,020 모금(임은숙) 81,320 모금(장업신,묘덕왕) 37,180 모금(정명화,희지재) 61,700 모금(한옥주,공덕해,희열광) 65,560 모금(희열광,묘덕왕) 117,170 묘덕왕 62,870 무주상 31,170 무주상 21,560 무주상 39,720 무주상 28,300 무진덕 34,070 박상보 27,400 박상호 25,760 박선진 32,500 박수정 6,040 박수진 20,270 박정선 13,640 박종호 23,150 배선혜 19,820 백정숙 22,600 손영상 32,440 손영수 35,670 이다솔 8,100 이상우 16,090 이수호 31,470 이정화 18,550 이정환 20,570 전병득 96,350 정경원 18,810 정승호 22,890 정신영 36,190 정애경 32,700 조명래 17,580 조순옥 28,550 지명자 17,730 진여성 26,000 청인사매점 20,620 최경순 49,160 최창주 21,080 해인심 27,120 허연주 18,270 현점자 21,790 혜충스님 27,200 황영진 33,460

## ■ 대전

강인순 1,860 강태천 4,280 광동오 3,300 광영술 37,200 광영화 30,100 광원석 34,000 광태석 33,000 기와 집 620 길순용 25,600 김금희 1,820 김덕숙 2,350 김덕영 16,660 김동선 34,750 김성숙 3,790 김혜진 4,560 나창규 2,090 모금(4월17일) 209,000 모금(4월8일) 6,000 무주상 3,690 무주상 1,380 무주상 3,500 무주상 1,670 무주상 7,580 무주상 2,660 무주상 13,010 무주상 1,690 무주상 520 무주상 2,540 무주상 1,910 무주상 4,020 무주상 7,180 무주상 8,680 무주상 8,640 무주상 1,740 무주상 7,990 무주상 3,270 무주상 2,930 무주상 2,300 무주상 2,380 무주상 4,300 무주상 19,470 문선임 3,210 박민준 18,430 박영민 19,620 박주희 2,180 박찬분 6,700 박찬억 2,710 북경오리 2,750 석정수 5,990 신정아 6,920 신평식육점 6,270 실진숙 2,240 오동진 19,170 원혜숙 3,510 유재원 6,160 윤덕희 7,500 이무용 29,030 이재경 7,770 이정선 30,670 이주경 8,900 이충숙 5,420 이태성 23,550 제갈명지 15,710 조덕희 8,700 조연옥 15,560 최화숙 3,500 할머니해물탕 11,370 현지 6,520 흥재식 35,000 흥재식 23,960

## ■ 마산

모금(경남대학교) 28,150 모금(고속버스터미널) 25,200 모금(고속버스터미널) 79,240 모금(고속버스터미널,법당앞) 81,510 모금(마산고등학교) 116,090 모금(마산뱃거리) 24,500 모금(마산뱃거리) 39,740 모금(마산뱃거리) 45,320 모금(마산뱃거리) 36,190 모금(마산뱃거리) 42,670 모금(어린이날) 629,330 모금(어시장) 32,700 모금(정우상가) 66,320 모금(정우상가) 153,350 모금(정우상가,용지공원) 117,300 모금(진전중학교동문체육대회) 195,300 모금(진해군항제) 128,290 모금(진해군항제) 56,660 모금(창원대학교) 70,000 모금(창원올림픽공원) 163,000 모금(창원올림픽공원,마산고등체육대회) 403,200 모금(창원용지공

원,정우상가) 116,090 모금(창원정우상가) 77,920 모금(회원초등학교동문체육대회) 208,300 묘길수 32,780 무주상 7,130 무주상 36,830 무주상 11,460 무주상 26,470 무주상 29,650 무주상 27,110 무주상 18,510 무주 상 25,910 무주상 30,120 무주상 20,680 박덕용 33,990 성현철 25,680 신해일 33,990 유성욱 80,000 윤정선 27,290 윤정선 42,010 음식나라노문학 20,830 임나영 6,930 임흥규 100,000 진영생 12,910 최금수 5,650 최 재철 27,100 한필 22,210 홍소아과 60,000 홍수진 14,750 황복석 100,000

## ■ 부산

모금(윤명욱) 32,000강분옥 29,880 강수민 21,220 강철원 30,000 고필숙 29,350 구길용 30,150 구지용 14,700 권쌍봉 5,280 금선희 11,060 김규식 15,720 김기덕 13,680 김기덕 14,440 김동규,동영 20,370 김명렬 1,720 김명렬 89,000 김민수 18,300 김민수 18,390 김병욱 16,970 김순자 17,960 김영미 7,400 김옥이 13,630 김용금 18,530 김재욱 24,780 김정은 19,610 김정혜 20,180 김주자 17,200 류선미 25,990 무명 4,490 무명 6,880 무명 10,970 무명 14,330 무명 15,410 무명 18,950 무명 20,000 무명 20,600 무명 23,750 무명 24,770 무 명 25,670 무명 26,080 무명 26,350 무명 28,400 무명 29,090 무명 29,120 무명 29,140 무명 29,880 무명 40,750 무명 42,490무명 42,780 무명 51,910 무명 77,720 문성연 24,870 민승서담(류차승,김대희,이도영) 98,000 박도환 15,240 박미화 36,440 박성일 17,310 박정덕 43,570 박정필 25,300 배수진 23,280 배인옥 9,870 법문주 28,180 법문주 31,300 법문주 33,800 법문주 35,730 법문주 57,760 법문주 78,250 법문주 78,800 법문주 91,200 법문주 93,000 법문주 96,650 법문주 109,210 법문주 130,510 서무선 17,250 선덕행 2,710 설명애 28,790 신민우 32,550 신은례 8,590 심지희 55,390 안미숙 15,510 양법근화 35,330 양수미 12,170 윤말숙 53,000 윤문주 41,200 윤미섭 21,500 이경선 23,640 이경준 28,150 이경희 17,200 이금이 13,850 이은희 20,400 이상우 10,210 이석원 31,960 이선민 22,100 이수민,이경민,이강민 20,700 이승익 11,550 이승재 11,440 이재준 11,170 이재준 24,250 이정대 23,530 임인숙 26,690 임정남 25,000 장진하 18,020 장진행 2,860 장진화 13,360 장태혁 23,160 정소연 23,940 정수는 3,890 정윤성 6,320 정윤희 5,480 정지수 27,710 정현철 10,000 정혜경 16,180 조은이 23,150 조재현 17,670 진숙희 20,350 차홍선 20,410 최 광수 37,940 최광수 38,240 최성희 20,110 최연택 8,600 최정숙 28,200 친환경실험실(이은경,김대훈) 3,550 하이택 9,110 홍승태 13,640 황두연 12,820 황말희 22,190

## ■ 서울

기농농협 26,410 강애니 19,710 강재상 10,000 강지영 134,000 강지영 78,500 강현수 11,440 강희석 66,770 거리모금 345,070 고상현 4,560 고석금 5,120 고석금 8,830 고석금 15,820 고한사 60,020 공양간 6,450 권기 흥 51,230 권용근 7,340 금강일렉트 79,950 김경애 20,000 김경희 47,210 김동규 7,700 김동선 24,850 김동 선 24,710 김명숙 9,450 김민규 15,100 김병욱 5,000 김성배 9,050 김성일 1,700 김소라 21,570 김소아 6,960 김숙희 10,000 김애숙 36,220 김영범 12,860 김영선 14,140 김영희 6,000 김예슬 3,430 김옥정 15,970 김우 열 10,830 김재천 5,000 김재천 5,000 김정숙 10,000 김정숙 10,000 김조현 20,000 김주양 31,880 김진순 790 김진웅 21,090 김창민 22,280 김창희 23,920 김혜란 1,070 김혜련 20,000 김혜련 20,000 남계희 12,910 남동 우 17,400 남동우 12,170 남순자 25,610 남찬길 24,510 노민시 5,030 노현상 1,800 라철남, 박항숙 3,000 무 주상 24,970 무주상 21,820 무주상 24,540 무주상 50,560 무주상 21,690 무주상 5,050 무주상 29,280 무주상 10,500 무주상 35,120 무주상 12,110 무주상 6,960 무주상 19,880 무주상 28,130 무주상 23,860 무주상 28,300 무주상 3,000 무주상 2,000 무주상 6,500 무주상 1,100 무주상 1,600 무주상 4,060 무주상 1,000 무주 상 11,600 무주상 23,810 문경 18,780 문경 1,500 문대현 9,920 문채원 2,650 민락중학교 3학년 7반 36,550 박광열 22,240 박남숙 19,110 박동휘 30,260 박동희 24,620 박명기 9,780 박명운 30,560 박명춘 35,900 박미 나 20,390 박민제 13,010 박봉신 77,840 박성현 2,000 박영순 40,360 박영자 19,190 박옥정 50,000 박정옥 2,200 박태현 42,910 박현우 18,970 박형규 1,760 박혜경 24,610 박혜경 43,400 박혜경 55,360 배진규 7,520 백영철 1,400 백영팔 1,800 복지부모금 102,290 복지부보시합모금-아프간 120,000 산티(평화) 23,240 서재 윤 13,610 서처옥 61,100 서초공업사 11,530 성주용 4,500 세라렘 9,710 손영민 1,000 손정숙 70,000 송세정

2,850 송유근 6,190 신란영 2,310 신성희 7,600 신순영 24,180 신정덕 16,130 신정열 19,380 신진혁 5,730 신현중 31,150 신현중 32,560 심명수 4,730 심용석 4,850 심유현 39,100 인금옥 31,090 안응연 26,570 양수정 760 어린이날모금 1,656,410 연등축제정토대학생모금 340,510 연등축제판매및모금 1,416,500 오성혁 1,500 오수민 1,180 오윤경 28,450 오윤정 37,970 외환은행안산지점 15,670 우연 22,620 우정 12,370 원동훈 1,700 유순호 20,680 유아미 4,300 유영신 34,490 유현정 6,840 윤미옥 3,170 윤선필 3,900 윤성호 2,000 윤여령 20,450 윤영난 2,200 윤혜민 14,720 이광노 4,310 이금철 36,250 이민주 3,150 이병욱 3,190 이상연 60,000 이수영 860 이순섭,이기갑 30,000 이순섭,이기갑 30,000 이연화 1,740 이영훈 4,870 이영희 26,510 이옥순 32,940 이은숙 16,960 이은희 10,470 이재성 15,480 이정건 19,680 이주미 13,050 이준형 6,440 이종제 4,190 이지우 10,750 이진아 7,650 이창훈 29,510 이택건 17,060 이혜나 6,460 이현구 418,000 이현숙 9,830 이현정 3,860 임마로 12,520 임방희 11,280 임상순 37,030 임석승 6,610 임혜형 4,290 자영 12,260 장성호 34,580 장영석 10,000 장은주 7,250 장진산 4,520 장창호 31,410 장해인 24,200 전성환 9,290 전용완 25,230 전진주 2,620 전형수,상수 23,270 정명숙 25,850 정성자 26,600 정영우 25,880 정윤자 21,570 정채일 82,140 정초림 2,830 정춘자 6,290 조동희 25,410 조영진 6,580 조정숙 21,010 지금련 17,140 차승욱 4,610 채금숙 5,000 채정혜 35,800 초파일시판매대금-신도복지부 481,000 최경련 17,090 최경련 10,050 최경련 3,750 최아람 9,030 최은호 11,960 최이섭 37,830 최정숙 1,880 하디스본사 34,660 한우초 23,570 한혜자 41,650 허재순 10,000 허진혁 28,890 희자임 15,090 J마트 22,430

## ■ 울산

곽정인 24,400 권태형 17,050 김 산 9,190 김기람 20,870 김경희 32,900 김민희 27,490 김미진 18,900 김성태 23,180 김현지 17,740 박 경 31,560 이승렬 25,940 임성진 13,190 정상도 15,070 정인권 24,990 정진현 15,350

## ■ 제천

거리모금(5월6일) 99,000 거리모금(5월12일) 160,920 박정순 22,400 유다인 10,300 유동우 20,200 유현욱 9,500

## ■ 청주

김동윤 25,980 김윤희 22,020 모금(4월) 132,170 모금(5월) 319,370 민안자 30,250 안정화 18,580 이윤현 20,290 이정희 8,080 장영애 32,010 정남식 22,260 정미옥 320,000 정순옥 71,320 정의성 81,930

## ■ 해외

필리핀 \$140 170,100 LA정토 \$803 963,600

## ■ 라진 선봉 유치원 탁아소 결연 현황표 변경 ■

JTS에서는 1997년 11월부터 116개 탁아소와 유치원 11,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3년 4월에 라진시에서 온 보고서에 의하면 99개의 유치원과 탁아소 9,530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로는 어린이의 숫자가 감소되어 없어진 곳, 유치원은 그대로 있지만 이름이 변경된 곳과 기존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곳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번 호 부터는 변경된 결연현황표를 신습니다.



#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3. 6. 20 현재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3. 6. 20 현재



# 마산 고등학교 동문체육회 마당

빅근속 / 마산자원활동가, 모금팀

마산 고등학교 동문 체육회 마당  
아이, 엄마, 아빠 한 가족들이 여러 기  
별로 끼리끼리 천막 밑에 모여 축구경  
기를 보면서 간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웃음꽃이 운동장 안에 가득하다.  
첫 번째 천막, 은박자리 위로 많은 눈  
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즐거운  
날 이네요, 20년 동안의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 한 분이 <고통스  
럽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프간의 어린이들에게  
연필과 노트 마실 물이라도 보내고자  
모금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양진월 보살님이 모금함을 들이댄다  
<이거 제대로 가요?>  
<예 믿으십시오>  
<우째 믿소>  
<제 목에 걸려있는 신분증을 보십시  
오, 주민등록증 곁에 모금하는데 뭘  
숙이겠습니까?>  
이쯤해서 스님 수상내용을 써먹어야  
마무리 도장이 찍어진다.  
<저희들은 작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  
라 부르는 막사이사이 평화상을 수상  
하신 정도회 법륜스님께서 이사님으  
로 계시는 구호단체입니다. 백 퍼센트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전단지의 제이  
티에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여  
러분이 주시는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  
이는지 잘 나타납니다)>

<그래요? 잘 전하쇼>  
<예예 고맙습니다. 잘~전하겠습니다>  
시퍼런 배추 잎 하나 꺼내주시는데 <  
오메~ 우째 시작이 심상찮네이~>  
양진월 보살님 왈 <아이고 보살님! 만  
원 짜리네 예 호호호...>  
이렇게 시작된 모금. 마지막 한 톨을  
남기고 사십 여분만에 끝나게 되었다.  
개개인이 아닌 기별 모금이라 열 두어  
군데 돌고 나니 간단했다.  
마지막 천막에 낫 익은 열굴, <누구시  
더라...?>  
아이고! 남정화 보살님의 거사님이  
시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각시는 어찌  
고 혼자이십니까>  
<아~예, 집에 일이 있어서... 수고 많으  
십니다. 식사 좀 하시지애>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가 마지막이  
라 끝내고 곧 갈 겁니다. 동창회장님께  
말씀 잘해 주이소>  
원장님이 거들어서 배추 잎 두 장이 모  
금함으로 들어왔다  
'오늘 모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고  
맙습니다. 꾸준히 복 많이 지으십시오.'  
속으로 합장 기원해본다. 교문을 나서  
니 시원한 바람이 한낮의 더위를 밀어  
내주어 고맙고, 길옆 나무들의 그늘  
도 고맙고, 모금이 오늘만 같아라. 랄  
랄랄~~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행어보시. 랄랄랄~~